

세월호 처럼... 5·18 상징물 만든다

행사위, 내달 계기수업 때 초중고생들에 디자인 공모 내년부터 본격 사용키로

세월호의 '노란리본'처럼... 제3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5월에 5·18의 의미를 담고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두환이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맞서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로운 자치공동체를 형성한지 36년이 흐르면서 시민들, 나아가 국민 기억에서 잊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사와 법률

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 획을 그은 민주화운동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음에도 끊임 없는 왜곡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세월호의 노란 리본처럼 인터넷과 SNS, 사람들 옷, 가방에 쉽게 눈에 띈다면 80년 5월 그날의 희생이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사람들 가슴 한 편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섞였다.

5·18을 온전히 담은 상징물은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서 나올 전망이다. 오는 5월 학급별로 진행되는 5·18 계기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이 제출한 상징물(간) 가운데 일정 절차를 거쳐 뽑기로 광주시교육청과 5·18 행사위원회가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서 나온 상징물 가운데 일부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상징물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다듬어진 후 5·18의 첫 상징물로 탄생, 내년도 기념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5·18 기념행사위 관계자는 "36년이 지나면서 시민들, 국민 마음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데다 극우세력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고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고 우리 스스로 5·18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상징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교육청, 5·18 전국화 교육 강화

도덕·사회 교과 연계해 수업 사적지 둘러보는 인문학 기행 오월민주강사 타지역 파견도

광주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5·18 교육이 진행된다. '5·18 전국화'를 위해 타 지역 학생들에게 5월 정신을 알리는 '오월'로 떠나는 인문학 기행'과 '오월민주강사단' 파견 사업도 펼쳐진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5·18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강화된 5·18 교육 기본 계획을 내놓고 5월 정신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18의 전국화'를 통한 왜곡·편향을 차단하자는 데 초점을 맞춰 광주 학생·교사들을 위한 5·18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광주지역 모든 학교가 5·18 기념식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5·18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도덕·사회·한국사 교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인정교과서와 '5·18 교육자료'인 '5월, 청소년을 기억하다' 등을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민주 역사 사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학교별로 운영되는 청소년 동아리 '5·18 바로'

를 통한 5·18 민주화운동 홍보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5·18 당시 희생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들이 다녔던 15개 학교별로 추모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대구 등 타 지역 학생들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고 5월 정신을 기리는 '오월로 떠나는 인문학 기행', 전국에 오월 전문 강사단을 파견하는 '오월민주강사단 운영' 사업 등도 진행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5월 교육 내실화를 위해 8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교육 담당교사 워크숍'을 비롯, 7~10일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18 전야제, 백남기씨 가족 함께 한다

세월호 가족들도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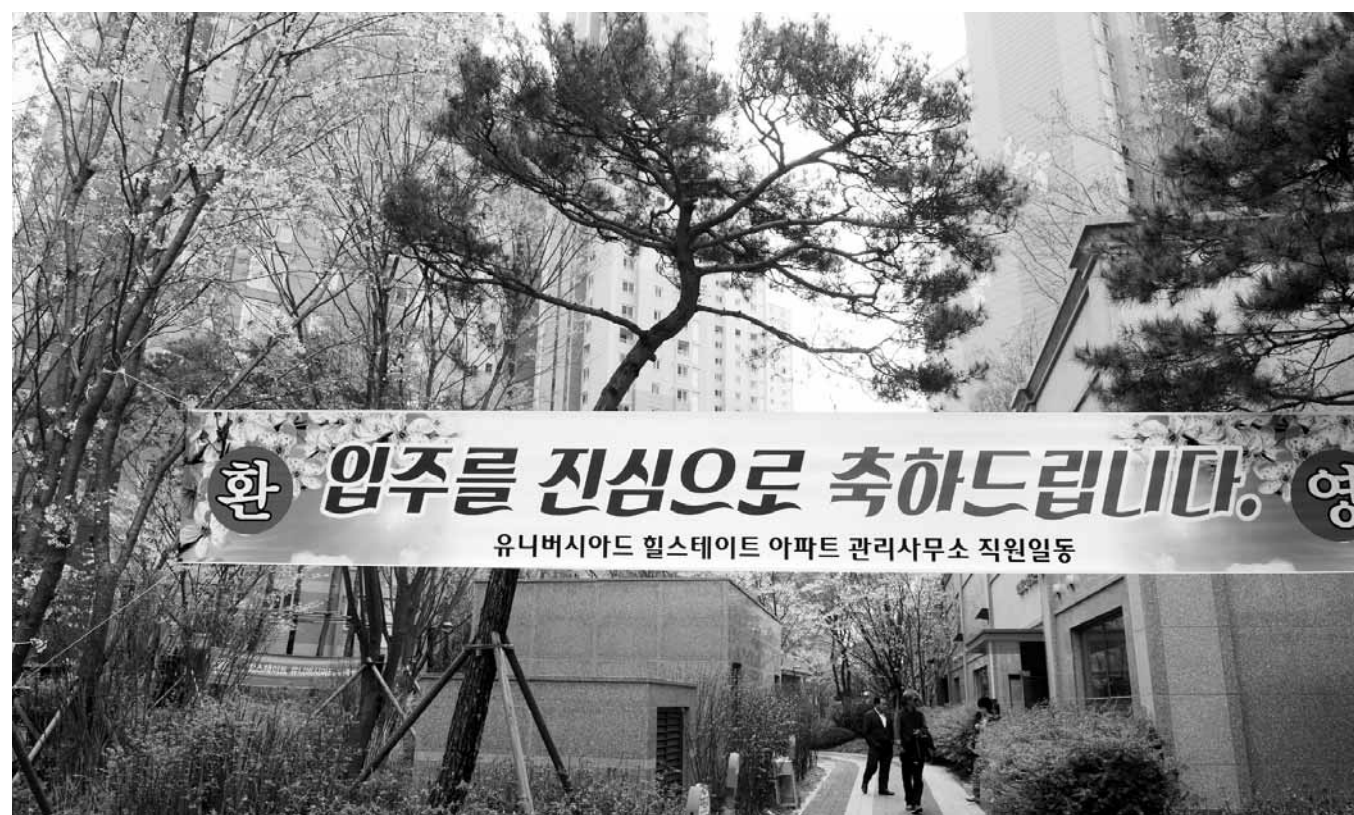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보성 농민 백남기씨의 가족이 5월 17일 광주 금남로를 찾는다. 지난해 말 그는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항의하려고 서울서 열린 민중 총궐기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00일 가까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3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5·18 전야제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세월호 가족 등

고통받는 민중들이 함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민 백씨의 딸 도라지, 민주화(네덜란드 거주)씨 등 가족들은 회의를 거쳐 행사위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를 최근 전달했다.

백씨의 딸들과 세월호 가족, 수백 일째 서울에서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가족은 농민, 청소년, 노동자, 대학생 등 시민들과 손잡고 금남로를 행진하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민주대행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드디어 입주합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가 7일 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원간 추가부담금 규모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집행부가 바뀌는 등 갈등을 겪으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나왔으나 입주는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전선거운동 협의 강운태 전 시장 기소

강 전시장 "표적수사" 단식농성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 설립·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재판을 넘겨졌다. 강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후원금과 적극 가담자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검찰이 밝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환)는 7일 산악회를 조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사조직 설립·이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로 강 전 시장과 산악회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산악회 고문과 부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시장 등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해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벌이며 선거구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강 전 시장 등은 관광버스를 이용해 고흥 나로도와 신안 증도 등 관광지를 돌며 참가자들에게 720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주류·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로 조사됐다. 또 행사 때마다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강 전 시장에 관한 의혹이나 소문 등을 상세히 해명하거나 지역구(남구) 발전 공약 등을 설명,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주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차례 준비모임을 개최했으며, 권역별·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를 준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산악회 설립·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원금 기부행위와 가담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적극 가담자는 입건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광주 동남갑에 옥중 출마한 강 전 시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강 전 시장은 이날 변호사와 옥중서신을 통해 "산악회에 다녀왔던 선량한 시민 수백 명을 소환 조사한 것에 분노를 느끼며 강운태를 잡기 위한 표적수사"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이번엔 핸드볼...지역 체육계 잇단 비리 몸살

수영·축구 이어 코치 계약금 가로챤 실업팀 감독 입건

수영·축구에 이어 핸드볼까지 지역 체육계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을 소속팀 코치로 영입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업팀 감독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속팀 훈련실에서 B(41)씨와 코치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쓰겠다고

통장으로 돈을 건네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회 출전 선수 지명, 프로팀 영입 추천 등 소속 코치나 선수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당초 돈을 자발적으로 건넸다고 했지만 다른 구단으로 옮긴 뒤에는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구단에 선수 영입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코치와 분담해 영입비용을 냈다. 영입 대상 선수는 B씨가 지도한 제자였다"면서 "빼앗은 게 아니고 선수 영입을 위해 B씨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수영연맹 간부가 횡령 등으로 구속·소환된 데 이어 광주수영연맹 간부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순천에서는 '프로축구단에 입단 시켜주겠다'며 여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프로축구단 에이전트사 직원과 현 클럽축구팀 감독이 경찰에 적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50억원 납품 사기 나주경찰, 30대 구속

나주경찰은 7일 도축장을 만들어 돼지고기 부산물을 독점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정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2월까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식자재·축산물 유통회사를 운영하면서 6명에게 돼지고기 부산물을 대량으로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평소 거래를 해온 유통업체 업주 등은 모두 9건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서 피해금액이 1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불법분묘 불만...시청사 방화 기도

○...자신의 밭 옆에 들어서 있는 불법분묘 이상 민원을 수년째 제기해온 40대 남성이 나주시청 청사 내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경찰서행.

○...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가 이날 오후 3시43분께 나주시청 1층 시장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지만 마수에 그친 혐의.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밭 옆에 수년 전 다른 주민이 성토작업을 해 묘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밭이 배수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경찰은 "나주시가 2019년까지 불법분묘를 이장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씨는 유예기간이 너무 긴 것에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산구 안창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처장
- ★ 근린시설 북구 매곡동 4층건물 대지739㎡ 건물1,2616㎡ 지대높음 ▶ 감평가 3억5천6백 최저가 2억4천9백
- ★ 주택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전원주택, 대지 1610㎡ 건물 217㎡ 2층주택 지대높음 ▶ 감평가 3억5천6백, 최저가 2억4천9백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